

출장보고서

I. 출장 개요

1. 출장건명: 식료안전보장 국제심포지움 참석
2. 출장목적: 식료안전보장 국제심포지움 자료 수집
3. 출장지역: 일본 동경 오쿠라호텔 컨퍼런스룸
4. 출장기간: 2010.04.06 ~ 2010.04.08 (2박3일)
5. 출 장 자

부서명	직 급	성 명
미래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김 명 환

6. 출장일정

일 정	주요 활동내역
4.6	김포-동경-오쿠라호텔
4.7. 08:30-17:00	심포지움 참석(프로그램: 첨부)

7. 주요 참석자 및 발표자

소속기관	직급	성명
미국 농업부	장관	Tom Vilsack
일본 농림수산성	장관	Hiroataka Akamatsu
미국 곡물협회	회장	Thomas Dorr
주일 미국 대사관	대사	John Roos
일본 외무성	차관보	Koichi Takemasa
University of Illinois	교수	Robert Thompson
World Bank, Development Research Group	매니저	Will Martin
National Institute of Crop Research	소장	Masaru Iwanaga
Ohio State University	교수	Rattan Lal
Sapphire Energy	박사	Jason Pyle
Tokyo University	교수	Masayoshi Honma
Michigan State University	교수	Tom Reardon
JICA	부이사장	Izumi Takashima
USAID	Counselor	John Beed
World Food Prize Foundation	박사	Kenneth Quinn

II. 식량안보국제심포지움 성격 및 주요 발표 요지

- 이 국제심포지움은 미일간 'Partners in Agriculture' 기념행사의 하나로 개최됨. 4/7은 국제심포지움이고, 4/8-9에는 미국 아이오와주와 일본 야마나시현간 자매결연 50주년 기념행사가 야마나시현에서 개최됨. 1959년 일본 야마나시현(주요 축산단지)은 두 차례 태풍에 의해 돼지 생산기반에 심각한 타격을 받음. 주일 공군에서 대민담당으로 일하던 Richard Thomas 상사는 그 소식을 듣고 아이오와주 돼지를 공수할 생각을 하게됨. 그는 주일 미국 대사관 농무관 Don Motz와 상의하고, 아이오와에 가서 미국옥수수경작자협회 Walter Goeppinger 회장을 만나게 됨. 우여곡절 끝에 1960년 미 공군은 돼지 공수용 비행기를 제공하고, 미국 농무성은 CCC 재정에서 1등급 옥수수 6만 부셀을 기부하여 36마리 종돈이 공수됨. 1960년 6월 1일 아이오와주와 야마나시현은 자매결연을 맺음. 이것이 "Hog Lift" 스토리로서, 유럽에 치중되었던 미국곡물수출이 아시아로 다양화되고, 일본 양돈산업의 현대화와 미국곡물협회가 일본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게되는 계기가 됨.
- 심포지움 성격과 참가자들의 성향으로, 세계식량수급에 대해 비관적인 입장에서의 발표, 토론이 많은 편이었음.
- Roos 주일 미국 대사: 미일간 50년 우호가 지속되고 국제 기아와 식량불안을 줄이는데 필수적인 파트너이자 실행자로서의 역할을 계속할 것으로 확신함.
- Vilsack 미국 농무부 장관: 오늘 주제인 국제식량안보는 국제현안중 하나임. 세계적으로 10억명 인구가 영양부족에 노출되어있고, 6백만명의 아이들이 매년 영양실조로 죽어감. 이 문제 해결에 미일 양국은 경제력, 교육 수준, 도덕적 기반이 공고하므로 함께 책임있게 노력해가야함. 정부 차원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므로 민간부문, 학계, 시민사회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함.
- Koichi Takemasa 일본 외무성 차관보: 지난주 일본 오카다 외무상과 미국 클린턴 국무장관의 회담 중 한 안건으로서 APEC 2010년과 2011년의 각각 의장국인 일본과 미국이 식량안보에 대해 공동노력을 하기로 함. 2009년 7월 G8 L'Aquila Summit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일본은 2010-2012년에 30억달러 이상을 개도국 농업과 관련 인프라 구축에 지원하기로 함. 특히 농업 유통인프라 구축이 중요함.

일제로 일본은 아프가니스탄 동부지역에 쌀재배기술지원을 하였으며, 생산성이 3배로 올라감. 모잠비크 북부지역에는 20년 계획의 농업개발지원을 하고있는데, 이는 일본의 브라질에서의 농업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있음. 또한 사하라연안 지역에 쌀 생산성을 배가하기위한 10년 사업도 추진함. USAID와의 공동사업을 희망함. ODA 자금만으로는 부족하며, 민간투자를 유치할수 있는 전략이 필요함.

- Hirotaka Akamatsu 일본 농림수산성 장관: 세계 식량문제는 추가수요 지속, 곡물 가격 상승, 개도국의 어려움 가중 등이 전망됨. 일본은 2010년에 식량안보 향상을 위한 국내적 정책목표로 (1) 지속적 농업 발전을 위한 농촌의 재활력화 (revitalize), (2) 식료자급률 50%로 상향, (3) 농업과 식품산업이 연계된 제6차산업으로서의 농촌 발전, (4) 식료 공급체인 운영으로 안정된 식료공급에 힘. 국제적으로 ODA 및 G8 개도국농업지원 자금 확충 및 농업인프라 투자 확대가 필요하며, 2010년 10월 16-17일에 니가타에서 열릴 APEC 식량안보장관회의에서 이 의제를 심도있게 다루고자 함.
- Robert Thompson 일리노이주립대 석좌교수:
 - UN 전망에 따르면, 2009-2050년에 세계인구는 68억명에서 94억명으로 38% 증가하는데, 이중 고소득인구는 12억명에서 13억명으로 7% 증가에 그치는 반면, 저소득인구는 56억명에서 81억명으로 45% 증가함. 이는 주로 사하라주변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인구 증가에 연유함.
 - 10억명 인구가 영양부족 상태임. 배고픔 문제는 가난에 주로 기인함. 즉 14억명이 하루 \$1.25 이하로 생활하며, 이들의 70%가 농촌거주로 농업소득에 의존함. 세계인구의 40%인 26억명이 하루 생활비 \$2.00 이하임.
 - 국제적인 배고픔과 영양결핍의 문제는 가난 해결 방식으로 풀어야함. 일소득이 \$2.00에서 \$10.00로 증가한다면 육류, 낙농제품, 채소, 과일, 식용유 소비가 증가하면서 원료농산물 수요가 크게 증가함. \$10.00 이상이 되면 고가공과 고부가가치, 멋, 포장 등을 추구하게되어 원료농산물 수요는 크게 안 늘어남.
 - 2050년 세계 식량수요는 2000년 대비 두 배로 증가할 전망이다. 50%는 개도국 위주의 인구 증가, 50%는 개도국 경제성장에 기인함. 인구증가와 도시화로 인해 개도국의 순수입은 증가할 전망이다. 생산 배가가 가능한가?
 - 공급 제약요인 1) 농지: 세계적으로 가용한 경작지는 현재 경작지 면적의 최대 12% 증가 가능함. 산림 개간에 의한 경작지 면적 증대는 생태계 다양성과 탄소 증대로 한계

- 2) 수자원: 세계 물 소비의 70%가 농업용임. 빠른 도시화로 도시생활용수가 농업용을 잠식할 것임. 향후 농작물 증산은 물 덜 쓰는 작물 체제로의 전환을 요구함. 물절약기술, 한해에 건디고 물이용효율화 종자개발 등의 연구개발 필요
 - 3) 기후변화: 바다보다는 육지가, 그리고 고위도 지역의 기온상승이 더 빠르게 진행된다고 함. 지역적 강수량 변화는 아열대지역이 가장 줄고, 고위도지역이 많이 늘고, 몬순지역도 늘어남. 한발이나 홍수 빈도도 증가한다고 함.
 - 증산을 위해 긴요한 투자는; (1) 미경작지의 토지생산성 향상, (2) 작물과 가축의 종자 개량, (3) 작물의 영양함유 개선, 수자원 이용 효율 개선, 잡초와 태양광선 활용 관리, 병충해 관리, (4) 수확후 감모 절감 등임. 이를 위한 생물과학적 연구가 새로운 프론티어임.
 - 1980-2005년중 개도국에 대한 원조는 \$80억/년에서 \$34억으로 감소함. 1980년대 미국의 대외원조 중 25%가 농업분야로 갔으나 1990년대에는 6%, 2009년에는 1%로 격감함.
 - World Bank의 대출중 농업분야 비중은 1978년 30%, 1988년 16%, 2006년 8%로 반감을 거듭함.
 - 개도국들이 OECD 국가들로부터 원하는 바는; (1) 개도국의 비교우위품목에 대한 실질적 개방, (2) 국제농산물가격을 낮추는 수입장벽, 국내 및 수출 보조 철폐, (3) 인프라, 기술, 교육, 건강, 조정을 고려한 농촌개발에 필요한 원조와 대출, (4) 직접투자 등임.
- Will Martin 세계은행 지역연구그룹 매니저; 국제적 농산물 생산과 소비(인구) 분포가 불균형이므로 교역은 필수적임. 각국이 자급을 추구하는 것은 지역적 고가격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 등 비효율적임. 교역자유화가 수입국의 소비자가격을 낮추며, 개도국의 농민 역시 식량순매입자의 위치임. 자급구조는 지역적 자연재해 등에 따른 가격의 불안정성을 높임. 교역자유화가 확대될수록 국제가격은 안정됨.

Program

Wednesday, April 7, 2010 Okura Hotel, Tokyo

Welcome

8:30 – 8:35 Thomas Dorr / U.S. Grains Council

8:35 – 8:40 Ambassador John Roos / Embass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Japan

8:40 – 8:45 The Honorable Koichi Takemasa / State Secretary, Jap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Keynote Address:

8:45 – 9:15 U.S.–Japan Leadership in Improving Global Food Security
The Honorable Tom Vilsack / Secretary,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9:15 – 10:00 A Daunting Task: Projections of the Challenge Ahead
Robert Thompson / University of Illinois

10:00 – 10:15 Coffee Break

Panel A: Feeding A Growing World

10:15 – 12:15 Gebisa Ejeta / Purdue University

Masaru Iwanaga / National Institute of Crop Research

Rattan Lal / The Ohio State University

Jason Pyle / Sapphire Energy

Moderated by Rick Fruth / Fruth Farms

12:15 – 12:45 Japan's Contribution to Global Food Security

The Honorable Hirotaka Akamatsu / Minister, Japan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1:00 – 2:00 Lunch

2:00 – 2:45 Policy Matters

Will Martin / The World Bank

Panel B: Development Collaboration for Food Security

2:45 – 4:30 Masayoshi Honma / Tokyo University

Tom Reardon / Michigan State University

Izumi Takashima /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

John Beed /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Moderated by Kenneth Quinn / World Food Prize Foundation

Closing Address

4:30 – 4:55 Kenneth Quinn / World Food Prize Foundation

Closing Remarks

4:55 – 5:00 Thomas Dorr / U.S. Grains Council

<첨부> 발표 파워포인트 자료